

아낌없이 사는 삶

핵심 구절: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사 너희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9

선별된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8:1-15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의 말씀은 관대함의 마음가짐과 동기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자신들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으로 헌금한 마케도니아 형제들의 예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며 매우 가난하지만,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기쁨이 넘쳐 풍성한

관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증언하건대,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원해서 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동참할 특권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거둬들임 간청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1-4

앞서 언급된 구절은 베풀기 위해서는 풍부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관념에 도전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잉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조차도 희생적으로 베풀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재고하게 하고, 우리의 재정적 상태와 상관없이 성도들의 필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려하게 합니다. 이것은 작은 헌금을 드렸지만 가진 것을 모두 드렸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과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12:41-44

나눔은 항상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낌없이 나누고자 하는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가진

것을 나누고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관대함의 본보기입니까!

본문의 핵심 구절은 더 큰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기꺼이 영적 생명을 포기하신 겸손함으로 자비의 정신을 극한까지 나타내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온 인류 세계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을 랜섬으로 드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5:18,19; 디모데전서 2:5,6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 중 하나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압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14,16; 베드로후서 1:10

성경은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류 전체를 향한 우리의 연민을 보여주는 교훈들로 가득합니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권면을 우리 삶이 점점 더 반영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러하라."
갈라디아서 6:10